

북한산 · 천성산 이어 가야산까지... 불교환경운동 미래는?

초기대응 시스템 갖추자

‘늦은 대응’ 개발논리 못당해... 불교환경연대 초록봉사단 조직 계획



오는 10월말 완공예정인 사패산 터널은 현재 입 · 출구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 왼쪽은 북한산 관동도로 백지화운동 당시의 모습. 사진=박재원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활동에 불구하고 관동 결정이 난 북한산 관동도로. 일명 사패산 터널(4.0km)은 현재 입 · 출구부 구조물공사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말까지 터널 내 포장공사를 마치고 완공될 예정이다. 미 개통된 사패산 구간 7.5km는 오는 11월까지 연결교량 등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12월에 개통된다. 개발의 논리는 지을 스님의 목숨을 건 단상정전도, 수경 스님의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도 무참히 꺾어 버렸다. 이제 광풍은 백제 천년의 미소가 살아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까지 덮쳤다. 1500년 불교 문화유산이 숨 쉬고

있는 가야산엔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등성이가 깊이 패여 고압송전철탑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마애삼존불'에서 불과 100미터 거리가 있는 앞산에 터널을 뚫고, 문화재를 발굴중인 보원사지를 관통하는 가야산관동도로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처럼 각종 개발론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죄어오지만 저항은 힘겹지만 하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평행선은 결국 목소리가 강하고 큰 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늦은 대응'도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먼저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설화해야 전근대적인 대응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일반

여론의 못매를 맞은 문화재 관료 문제를 예로 들며,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단에서 해운 여러 가지 환경운동에 대한 노력들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사찰에서 사찰림을 관리하는 산감을 중심으로 모니터를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확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불교계가 평소 일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환경마인드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면 국민들의 열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자체를 비롯해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마인드가 축적되면 개발 초기에 각 사찰에서 환경위원회에 사안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풀뿌리 환경운동"에 무게중심을 뒀다. 불자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선행하고, 전국적인 환경지회 조직하며, 대외 홍보를 하는 3위 일체야 돼야 이상적인 환경운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명예 환경감시원을 선발하고 4월 12일 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 전국 21개 사찰, 7개 환경단체, 6개 교계단체 등에서 160여명 정도가 참가했다. 이들에게는 한 달 뒤 환경청장이 주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이 발급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들을 환경전문자 자원봉사단으로 양성한 뒤 불교환경연대 차원에서 전국규모로 조직할 초록봉사단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정우식 사무처장은 "평상시 초록봉사단을 견고하게 조직해 지역단체와 협조 하에 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이 환경포교를 위한 대안이자 지름길"이라고 내다봤다. 김원우 · 김주일 · 남동우 기자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제1기 독자위원회 위원 위촉
 손재현(동국대 사법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상호(건설교통부 건설교통 인제개발원 연구원), 김재복(고성중등학교 서무실), 김남기(원주 성불회 포교부장), 김시열(도서출판 운주사 대표), 최임배(도서출판 학지사 편집부장),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민정희(사단법인 로터스월드 국제교류팀장), 이남숙(현대불교 신수회 회장), 김민재(수필가) <무순>

영축총림 방장 추대식

22일 통도사 설법전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추대식이 4월 2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원명 스님은 지난 3월 6일 통도사 신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에 추대됐다. 남동우 기자

나라 · 민족위한 기원법회

종단협, 30일 롯데호텔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4월 3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2551년 부처님오신 날을 앞두고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민족의 화합과 공동발전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된다. 김원우 기자

'불자대상' 후보 접수 받아

조계종이 제4회 불자대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추천자격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등록 사찰 주지스님(법사의 경우 교구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과 조계종 등록 각급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포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있다. 이 외에도 총무원 총무부장의 동의를 받을 경우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추천서류 및 공적사항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총무부(02-2011-1706)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사고

■본사 계좌 변경 안내

2007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용계좌 중 일부가 (주)에이치비엘씨로 명의 변경됐습니다. 아래의 계좌를 제외한 기존의 (주)현대불교신문사 명의의 사용계좌는 해지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독 및 법보시 2004-8212 (교객팀:김경숙)
국민은행 : 245-25-0001-461
농협 : 053-01-269050
광고 2004-8213-6 (영업팀:김학표)
국민은행 : 222-25-0005-381
농협 : 053-01-269088
소필물, 여시아문 2004-8219 (여시아문:박원범)
국민은행 : 023-25-0007-617
농협 : 053-01-269062
후원 2004-8237 (담당:고영배)
국민은행 : 038-25-0008-365
기타
우체국 : 010579-01-004005
예금주 (주)에이치비엘씨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발족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발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미산 스님 '바른 삶 행복의 출발점' 4월 25일 오후 7시 광주 KT센터

I Love Buddha / 어리석음
 용정문(www.zentoon.com)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왜... 저 길이 아니고... 이 길이었을까...
 저 길을 걸었다면... 지금 난...
 가보지 못한 길을 아쉬워하며 걷고 있는 어리석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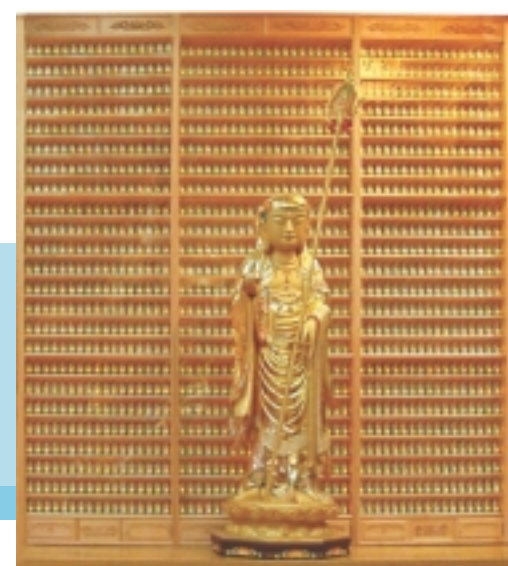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증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